

농어업위, 경기 가평군 집중호우 피해농가 복구 일손돕기 나서

- 장태평 위원장 및 사무국 직원 피해농가 수해복구 작업 지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25일(금) 경기 가평군 상면 울길리를 찾아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해 일손돕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재식 사무국장 등 사무국 직원 20여명은 함께 피해 농가의 밭에 쓸려 내려온 잡목과 자갈을 정리하고 울타리 정비를 하는 등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어업위는 수해복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은 “이번 일손돕기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위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살기좋은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무국 총괄기획팀	책임자	팀 장	송지숙 (02-6260-1211)
		담당자	사무관	한소자 (02-6260-1212)